



## 못났든 잘났든 이 세상 나온 보람 있게 당당히 사세요

여러분, 오늘 오계를 받았습니다. 그런데 우리가 이 마음공부를 증득하지 못하고 오계를 방편으로만 설하고 방편으로만 받는다면 그것은 아무 의미가 없습니다. 받는 사람과 주는 사람이 둘이 아니며 둘이 아닌 까닭에 부처님의 온 누리의 그 뜻이 한 철자에 서리니, 오계를 받은 분들은 앞으로 더 오계를 받을 필요가 없고, 첫째는 악한 병고에 휘달리지 않을 것이고 두번째, 모든 이 한마음으로 돌아가는 그 공부에 게으르지 않을 것입니다. 사람이 여우 꼬랑지라도 봐 줘야 물리가 터지고 충전이 되듯 우리가 산 뜻이 그대로, 전력과 자력과 통신력이, 그리고 광력이 같이 할 수 있는 그런 오계입니다.

세번째, 자녀들을 기르고 어머니 아버지로써 위로 부모를 모시고 이렇게 살아나가는 이 험난한 세월 속에서 오계 받은 사람이 한마음을 내면 그 마음의 그 뜻이 서로서로 전달되지 않으면서도 전달되면서 이어진다는 그 밝음의 불빛! 여러분은 그저 계만 준다 하면 돈을 내고 가서 계를 받는데, 만약에 중들이 돈을 모으기 위해서 계를 준다 하고 계첩을 만든다 하면 그것은 엄벌에 처해질 것입니다. 여러분, 똑똑히 잘 생각하시고, 이 계첩이나 또는 오늘 서로 계를 주고받은 그 뜻을 마음으로 새겨야지 물질로써 주고받은 그런 걸로만 생각한다면 그건 잘못된 생각입니다. 준 사람도 책임이 있고 받은 사람도 책임이 있고 부처님의 그 뜻에도 책임이 있으니 여러분은 잘 생각해서 그 계를 지키도록 하시며 또 그것을 믿으셔야 합니다.

넷째는 우리가 죽어서 천당에 간다고 하죠? 그러나 오늘 이 오계를 받은 사람들에게 한해서는, 만약에 승천하는 길이, 천당길이 지금 청와대라면, 비유하는 겁니다. 청와대에는 근거가 없이는, 표를 안 가지고는 들어갈 수가 없습니다. 그와 마찬가지로 우리가 오계를 받은 뜻의 그 확증이 있는 것입니다. 우리가 살아생전에만 이렇게 거주장스럽게 방편으로 그냥 떨어뜨린 게 아닙니다. 나도 책임이 있는 겁니다. 내가 책임이 있는 것은 내가 만약에 거짓으로 했다면 내 책임이 아주 클 것입니다. 내 책임이 크다고 하는 것은 여러 신도님들의 돈을 받아서 만약에 허탈히 하면서 거짓으로 설했다면, 내가 진실된 마음으로 여러분에게 계를 설하지 않았다면, 내가

구렁이가 돼서 그 비늘마다, 여러 신도님의 의식이 그 비늘마다 들어서 그것을 내놓으라고 할 것입니다. 그러니 그 책임이 얼마나 중요하고 막대한지 여러분은 깊이 모르실 겁니다. 그러나 오늘 여러분한테 계를 설한 것을, 나는 주는 사이 없이 주었으니 여러분도 받는 사이 없이 받아서 오지 뜻으로 간직하면서 그것을 허탈히 생각하지 마시라야 합니다.

지금 선풍 한 것이 뭐냐 하면 각 절에서 계를 준다 하면 그저 무조건 두 번이고 세 번이고 가서 받는 것을 능사로 생각하는데, 부처님께서도 말씀하시기를 "계를 허탈히 거짓으로써 방편으로 돈을 벌기 위해서 주었다면 그건 한테 떨어지는 설이다." 이런 문제입니다. "한테 떨어지지 않게 하라. 한마디를 하더

라도 한테 떨어지지 않게 하며 오계를 설하되 한테 떨어지지 않게 하라." 이런 말씀이 있었습시다. 그 말씀이 있었으면 그때 그 시절의 그 뜻은 오늘날까지도 생생하게 지금 여러분이 하고 계십니다.

삼천 년 전이 오늘이요, 삼천 년 후가 오늘입니다. 오늘이라는 이 자체에서 오늘도 잘나 잘나 공해서 반해 돌아가고 부서지고, 모든 게 잘나잘나 늙어지고, 젊었다가도 자라면서 늙어지고 없어지고 또 생하고 이러한 시점에서, 우리는 마음을 잘 가다듬어서 한마음으로 서 한마음에서 나오는 걸 한마음에다 되입력할 수 있는 그런 믿음과 진실을 여러분은 잊어서는 아니 될 것입니다.

만약에 오늘 계 받은 사람이 판 데 가서 또

좋은 줄 알고 계를 받으면 여러분은 오늘의 그 계 받은 게 무효가 될 것입니다. 예를 써서 피땀을 흘리면서 밤낮을 가리지 않고 벌어서 살려고 하는 사람이 단 1불을 쓴다 하더라도 허무하게 써서는 절대 안 될 것입니다.

오늘도 어저께도 가만히 보니까 이 장소가 좁습니다. 하지만 좁으면 어떻게 됩니까? 우리가 마음 깊이 생각하면서 웅기종기 앉아서, 또 웅기종기 앉아 있지 못하면 저기서라도 들으면 또 어떻게 됩니까? 여러분의 살림이 균색한데 이 절에서 크게 한다고 집만 넓히고 그런대서야 말이 됩니까? 그러나 우리는 심시일반으로 정성스럽게 되는 한 넓히자는 거지, 여러분이 집이 없이 굶주리면서 이 절간을 넓히자 하는 것은 아닙니다. 여러분 가정에서

균색하고 고독하고 가난하고 병고에 휘달린다면 이 못난 중 역시 마음이 아픕니다. 똑같습시다. 여러분의 가정이 화목하고 또는 병고가 없어지고 가난이 없어지고 가활이 없어지고 업보가 무너진다면 여러분의 그 밝은 마음과 내 밝은 마음이 지속되면서 아마 웃음으로 씨 꽃이 필 것입니다.

우리 중들이 목탁만 쳐서 종이 아니고 머리를 깎아서 종이 아니고 옷을 입어서 종이 아닙니다. 우리는 매일 시간 나는 대로 자기 머리를 자기 채찍으로 치면서, 오늘도 자기 채찍으로 자기 머리를 쳤습시다. 자기 장삼 자락의 그 순색을, 그대로 감지도 않고 희지도 않은 중심과 중도와 중용을 그대로 실천화시키는 이런 보람 있는 오늘의 이 값은, 진실된 마음을 그대로 반영하면서 여러분을 지속적으로 이끌어 갈 것입니다. 앞으로 이 중들이 또 다시 이 세상에 태어난다면, 태어난다 또 죽는다 이런 마음도 없이, 끝간 데 없이 여러분의 심부름을 삶다 안 할 것입니다. 난 다짐했습니다. 우리가 마음에 따라서 지속되기도 하고 반 길을 가다가 반 길에 끊어질 수도 있고 현실에 한 발짝도 내밀지 못한 채 끊어질 수도 있는 것입니다.

이 오계를 준 오늘, 내 책임도 있느니만큼 여러분 앞에 오늘 내가 이렇게 말씀드린 것은 그렇게 여러분이 이 오계 받은 것이, 그리고 계첩을 받은 것이 아주 중요하다는 뜻입니다. 제가 오늘 이렇게 말씀드린 것이 거짓이라면 여러분이 한번 지켜보세요. 이 부처님의 뜻이, 이 삼라만상 우주 세계, 이 세계가 말 없이 바로 말이 전달되고 손 없이 손이 온 누리에 꼭 차 있고 걸어다남이 없이 그 평발을 어디고, 바로 부처님의 발은 한발로 디뎠습시다. 엄청난 이 도리를, 광대무변한 이 도리를 여러분은 한시도 잊어서는 안 될 것입니다.

타의에서 구하는 것은 미신짓이요, 자의에서 구하는 것은 진실한 정(定)에 드는 바로 참선입니다. 여러분을, 과거에 살던 그 마음, 참 마음을 발견하는 옳은 길에, 정에 드는 길입니다. 내가 잠시 살다가 갈 것을 뭘 그렇게 욕심이 많아서 잠시 낙엽과 같은 것을 그렇게 타의에서 나를 살려 달라고 구해야 되겠습니까? 인간이라면 자기의 마음도 깨끗한데 왜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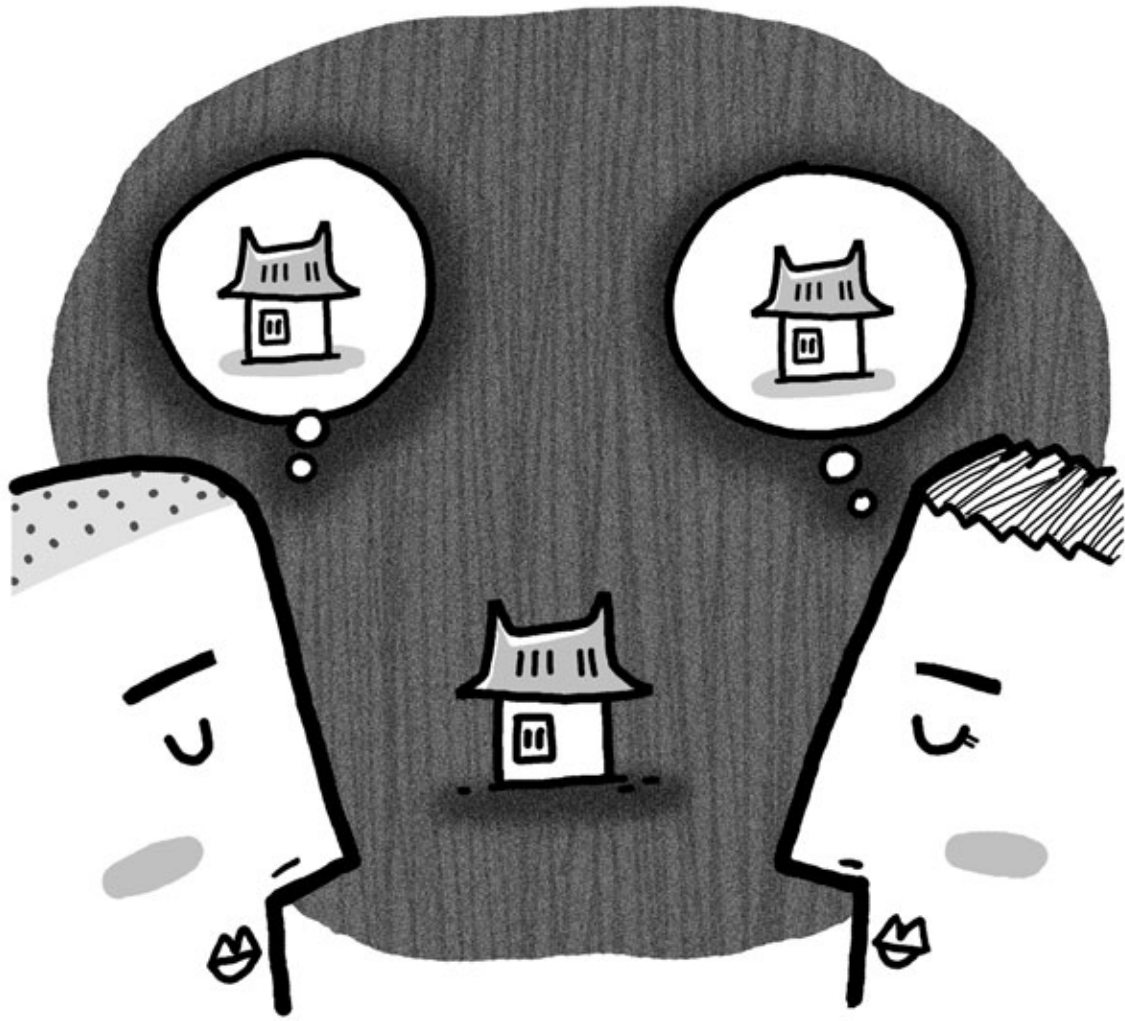


그림 · 최주현

30면으로 계속

## 마음으로 곧장 들어가라!



자기 마음의 뿌리, 자기 생명의 근본으로  
곧장 들어가는 길을 가리키는  
대행스님의 법음 法音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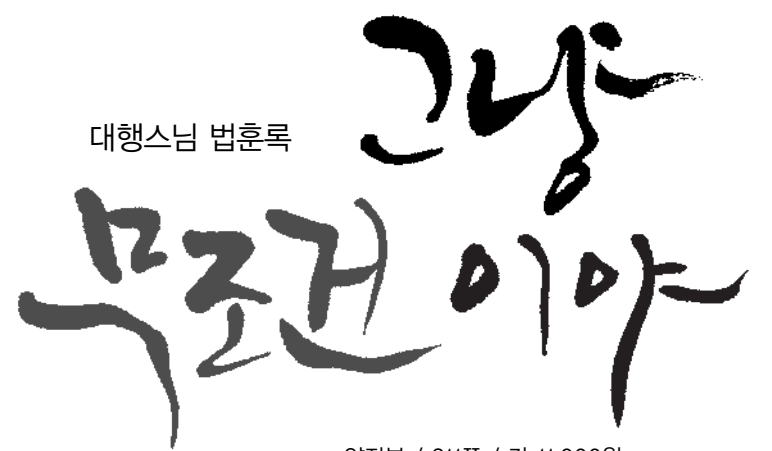
제자들과 나는 진솔한 대화 속에 담긴 선지 禪旨 -  
'삶이 곧 불법'임을 바로 깨치게 하는 우리 시대의 참말씀

우리는 일체의 경계를 둘로 보지 않고 자기의 깊은 내면에 던져버리는 수행이 꼭 필요합니다. 오로지 마음의 용광로에 넣기만 하면 됩니다. 주인공主人은 뜨거운 용광로입니다. 일체를 다 녹이는 용광로, 그 용광로가 우리의 마음 안에 있습니다.

- 본문 중에서

주문은 현불삼!  
02)2004-8216

농협 053-01-269062  
(주)현대불교신문사



양장본 / 211쪽 / 값 11,000원

# 망상도 바로 부처를 이루는 과정이라 생각해야

## 29면에서 계속

남한테 밉니까? 왜 남한테 노예가 됩니까? 왜 만날 심부름꾼이 돼야 하고 왜 남한테 구걸을 해야 합니까? 여러분이 농사지어서 가을이면 추수를 해 들이고 봄이면 또 심어서 또 먹고 되납니까, 어려운 사람들을 퍼 주기도 하고 그렇게 살지, 여여하고 부유하게 살지, 왜 마음을 가난하게 해서 그렇게 좁디좁은 골짜기에서 썩은 물이 고이게 만듭니까?

여러분도 못났든지 잘났든지 이 세상에 나온 보람이 있겠지, 당당하고 멋있게, 남의 노예가 될 게 아니라 자신이, 여복하면 자신(自神)이라고 그랬나. 남의 신에다 빌 게 아니라 내 신에다가, 차라리 자기를 끌고 다니는 자기 신을 믿고 거기에 맡겨 놓고 거기서밖에 해결 못한다는 그 믿음을 갖는 것이 옳지 않을까요?

어저께도 얘기했지만 수억겁을 거쳐 오면서 쫓기고 쫓으면서, 그리고 밟으면서 이렇게 진화해서 오늘날까지 인간의 탈을 쓰게끔 한 장본인의, 주치의 주인은 그렇게 여러분을 이끌고 온 것입니다. 그런데 여기까지 이끌어 온 장본인 참자기를 무시한다면 여러분은 어떻게 될 겁니까?

그래서 옛날에도 부처님께서 이렇게 비유를 했죠. 어떤 사람이 마누라 빗을 두었습니까. 돈을 많이 벌어서 놓은 부자인데 죽게 되니까 마누라 원통하거든요. 첫 마누라한테 고했습니다. “내가 인제 죽게 되니까 마누라 당신, 나와 같이 갑시다.” 하니깐 “나는 당신하고 못 가요.” 그러거든요. 둘째 마누라더러 또 “갑시다.” 하니깐 “나도 못 가요. 당신이 좋아했지 내가 당신을 좋아한 건 아니요. 당신이 나를 좋다고 좋아다녔지 내가 좋아서 당신을 좋아다닌 건 아니요.” 하더라고요. 당신하고는 영 못 가겠다고 하더라고요. 그래서 또 셋째 마누라더러 가자고 했습니다. “내가 혼자 가기가 너무 쓸쓸하니 당신이나와 같이 갑시다.” 하니깐 “나는 당신하고 같이 가되 묘지 앞에는 못 가고 화장터에는 같이 갈 수가 없습니다.” 하더라고요. 그러니 또 쓸쓸해서 빗째 마누라더러 그랬습니다. “여보, 같이 갑시다.” 하니깐 “여보, 그 말씀이 무슨 말씀이요? 수억겁 평년을 거치면서 당신과 나와는 한시도 떨어지지 않고 일 초도 떨어지지 않고 이날까지 살았거늘 올 때도 같이 왔고 갈 때도 같이 가지 그게 무슨 소리요?” 하더라고요.

그게 누굽니까, 빗이, 첫째 마누라는 내 몸뚱이를 말한 것입니다. 둘째 마누라는 재산을 말한 겁니다. 셋째 마누라는 자식과 부인을 말했죠? 가족입니다. 빗째 마누라는 바로 자기 주인공입니다. 그러니 그걸 비유할 때 첫째 마누라, 그 자기 몸도 같이 가지 못한다

이거죠. 몸도 내내 버리고 갈 거예요. 여러분이 쓰다듬고 밟고 내고 머리 빗고 목욕하고 바로고 이러던 이 몸뚱이도 같이 가지 않는다는 겁니다. 또 둘째, 돈이 말입니다. 사람들이 좋아서 병까지 들면서 쫓아다녀도, 돈이 말을 하기를 그랬거든요. “당신이 좋아서 쫓아다닌 거지 내가 좋아서 당신을 쫓아다닌 게 아닌데, 내가 당신을 어떻게 쫓아다녔소?” 가족들도 보세요. 가족들을 아무리 애지중지하고 기르고 내가 쓴 것을 먹고 단 거를 주고 내가 굶더라도 또 자식을 먹이고, 이렇게 길렀는데도 데리고 갈 수 없어요. 같이 가 주지 못해요.

어저께 그랬죠? 살아서도 다섯 가지를 대신 못해 준다고, 아무리 부모 자식 하더라도 대신 못해 준다고, 또는 부부라 아무리 사랑한대도 대신 못해 준다고, 그렇듯이 그 가족이 화장터나 묘지나 거기밖에는 못 가 준다는

고요. 허허허... 참 그런 사랑이라면 능히 할 수 있는 거죠.

한 철 살고 헤어질 거라면 그거 뭐하러 한 철 살겠습니까? 그래서 중들은요, 한 철 살 수 있는 인연들을 맺지 않으려고 다 버리고 이렇게 머리 깎고, 모두가 내가 되고 남이 하 나도 없듯이 모든 걸 버리고 입상을 해서 모든 걸 얻어 가지고 하 나도 버릴 게 없는 그 자체를, 그 능력을, 중용을 해서 보이지 않는 데 중생들이나 보이는 데 중생들이나 다 같이 한 마음으로 건질 수 있는 능력을 기릅니다.

그러니 우리가 오늘 연비를 하면서도 자성 본래를, 여기 이렇게 (등 뒤 액자를 가리키시며) 돼 있죠? 이거 잘 보세요. 그래서 옛날부터 그랬지만 나 역시 이렇게 말하고 싶어요. 여러분한테 오늘 이렇게 오계를 설하면서 아주 진실하게 또는 거짓 없이, 저 애들이 지금 연비를 했는데 아주 돌아서서 증병을 얹지

다 걸림 없이 뚫린 통소와 같이, 앞뒤 뚫린 대 상생활을 산다면 그것이 참선이요, 망상이라고 많이 꼬달리고 모두 끊으려고 애를 쓰지 말고 그 망상이 바로 부처를 이루는 과정이라고 생각하면서 끊지 않고 그대로 거기 놓고 들어가는 것이 열반의 참선이라. 열반의 길로 그냥 들어가는 코스라.

우리 마음은 체가 없어서 은산철벽도 없는 것이고 사람이 막힘도 없고 지붕도 막힘이 없고 모두가 뚫렸어. 사방이 특 터졌으니 내 길에 걸림이 있으며 내 가는 길에 막힘이 있으라. 내 마음먹는 대로 내 마음은 거침없이 지구 바깥을 벗어나고 어느 혹성이라도 어느 풀밭 풀은 물 속이라도... 여러분! ‘물이 깊어서 나는 못 간다.’ 이런 말이 있습니다. 지금 여러분이 몸뚱이를 가지고 살아가기 때문에 죽어도 그냥 그 의식이 남아 있어서, 이런

가 육식육식육식한데 잡아먹힐까 봐 또 못 갑니다. 허허허... 그러니 그것만 보더라도 네 군대를 다 그냥 못 건너가죠? 살아서 그렇게 못 건너가죠? 청와대도 그렇게 못 들어가게 해서 못 들어가죠. 그게 의식적으로 남아 있기 때문입니다.

여러분이 지금 ‘내 마음에 체가 없는데 뭐 때문에 강을 못 건너가느냐. 불을 못 지나가느냐. 독사가 있는 데를 왜 못 가느냐. 은산철벽을 왜 못 가느냐.’ 이걸 생각해 보세요. 그래서 난 여러분한테 연습시키는 거예요. 죽어도 거기에 걸리지 않게요. 이렇게 하나하나가, 진실하게 걸어가는 이 참사람의 참뜻을 여러분은 아셔야 하고 자유인의 길이라는 것이 그렇게 소중하다는 걸 아셔야만 됩니다. 그리고 그렇게 넉넉하고 지혜 있고 다 물러가 터져서, 마음으로 창살 없는 감옥을 만들어 놓고 해마다가도 그 감옥을 그냥 툭 쳐 버리고 한 찰나에 나서는 그런 당당한 여러분이 되시라고 말합니다.

그래서 오늘도 지금 연비를 하고 이렇게 오계를 여러분한테 설했는데 오늘 그렇게 연비를 하고 오계를 주면서 문득 이런 생각이 들었습니다. 사람이 아무리 하려고 그래도 업이 많아서 두꺼우면 물러가 터지질 않아. 아둔해. 아둔해서 철검이 됐어. 그러니 그것이 얼른 뚫어지기가 쉬우라 이겁니다. ‘그 철검을 한 그 업이 이 공부를 계속해서 나가다 보면 어느 때인가는 그냥 뚫려서 그냥 통과 통과 하 게끔 할 수만 있다면...’ 하는 마음으로 오늘 연비 받는 분들에게 그냥 그렇게 내린 겁니다. 언젠가는 가법계 터질 겁니다.

우리가 한마음으로 뭉쳐서 돌아갈 때는... 여러분, 옛날에 유교에서도 이런 말을 했죠. 막대기를 한 줄 해 오라고 그랬습니다. 막대기를 같이 한 줄을 쥐고 꺾어 보니까 안 꺾어 지거든요. 회초리 하나를 가지고 꺾는 데는 금방 꺾입니다. 여러분의 그 마음이 두루 하는 마음으로, 포괄적인 마음으로 한마음이 된다면 절대로 누가 꺾고 들어올 수가 없는 집입니다. 그러나 자기 개별적인 마음을 가지고 ‘어허, 내 주인공 찾았었나? 나 하나...’ 요것만 생각하지 마시라 이겁니다. 왜냐? 포괄적인 전체 우주 삼라대천세계의 근본이 인간의 마음에 있으며 태양의 근본도 인간의 마음의 근본이니까. 이 세상의 대지, 산하대의 근본도 바로 마음의 근본이니까. 이 뜻을 여러분이 왜 배웠습니까? 이것을 알면서도 실천을 못하는 거야 어찌했습니까?

(다음 호에 계속)

※ 위 법문은 1990년 12월 9일 국외자원법회에서 설법한 내용을 정리한 것입니다. 한마음선원 홈페이지(www.hanmaum.org)에서도 같은 내용을 보실 수 있습니다.



### 오계를 받는다는 것은,

삼계에 두루 하니 두루 하는 그 모습들이여, 영가들이여.

그 생명 그 자체가 영가들이 따로 없고 현재 생명들이 따로 없는

바로 도심으로서 여여하고, 생활이 실상이니

우리 한마음으로 뭉쳐 그 도리를 알라 하는

그런 뜻입니다.

거죠. 그것도 인연에 따라서 한테 합쳐서 집단 모아서 이렇게 매 놓듯이 비가 오고 천둥이 몰아쳐도 서로 쓰러지지 말고 살자고 인연을 맺은 것이 바로 가족이죠. 그래, 그 가족도 쫓아갈 수 없으니, 바로 자기 주인공만이 이 세상을 같이 살고 자기를 형성시킨 장본인이라는 말입니다.

그림을 그려서 못나게 했든지 잘나게 했든지 자기 작품을 그려서 바로 자기 모습을 띄워서 놓고 자기가 그 속에 들어서 알기알 부하면서 같이 살고 있는 거죠. 우리가 이 몸뚱이가 없으면 무효고, 본분이 없으면 목적이 없고, 생명이 없으면 아예 보이지 않는 거죠. 그러니 또 무효죠. 그렇듯이 변소에 가도 같이 갈 수 있고 아파도 같이 아플 수 있고 또는 웃어도 같이 웃을 수 있고 사랑을 해도 언제나 일분일초도 떠나지 않고 사랑할 수 있는 것은 바로 내 주인공밖엔 없는 것이죠. 늙고 나 젊으나. 그냥 고독해도 같이 사랑할 수 있고 자비를 베풀 수 있고, 구경을 가도 같이 구경하고 올 수 있고, 똥을 누어도 같이 똥을 누

얹을 거라는 거, 이것만 해도 고마운 걸 말로 할 수 없는데 앞으로 그 인연으로 인해서 죽어도 문이, 천당문이 활짝 열린다 이 소립니다. 청와대 들어갈 때 그냥, 그저 (가슴을 짚으시며) 여기 마크 하나 붙었으니까 인정을 받은 거 아닙니까. 들어가는 거야, 그냥. 문 닫고 들어오지 말라 이런 소리가 없거든. 그와 같다고 소립니다.

그러니 오늘 이 오계 받는 게 얼마나 중요하고 진실하고 참된 것인지 아실 겁니다. 삼계에 두루 하니 두루 하는 그 모습들이여, 영가들이여. 그 생명 그 자체가 영가들이 따로 없고 현재 생명들이 따로 없는 바로 도심으로 여여하고, 생활이 실상이니 우리 한마음으로 뭉쳐 그 도리를 알라 하는 그런 뜻입니다.

그래서 일체의 모든 것이, 여러분이 나왔으니 여러분이 일거리가 있으면 용도에 따라서 닦는 것을 다 한마음에다 놓고 거기서밖에 해결할 수 없다 하는 믿음을 갖고 그렇게 사신다면 바로 우리 일상생활이 참선이요, 또 어저께가 없고 내일이 없는, 오늘의 앞뒤가

공부를 안 하면 그냥 남아 있어 가지곤 ‘이이고, 저 물에 빠져 죽으면 어쩌나?’ 하는 생각이 있어서 못 건너가는 겁니다. 기독교에서도 ‘요단강 건너가 만나라.’ 하죠? 부처님께서도 ‘아제아제 바라아제 바라승아제’ 하죠? 강을 건너는 데도 내가 마음이 체가 없어서 한순간에 빛보다 더 빨리 건너갈 텐데도 불구하고 살아생전에 그 의식과 그 참된 마음을 몰라서 그냥 그 의식대로 저 물에 빠져서 죽을까 봐 건너가지 못하는 거죠. 그 의식으로 사니까.

그리고 또 불 소용돌이가 있으면 건너가질 못해요. 그 속에 들어가질 못해. 왜냐하면 그 불 소용돌이가 있으니까 뜨거워서 거기 타 죽을까 봐 못 들어가거든. 그러니 부처님 세계를 맞볼 수가 없는 거죠. 우리가 살아생전에 그곳을 그렇게 건너가지 못한다면 죽어서 천국에 갈까? 또 그뿐입니까? 은산철벽이 막혀 있으면 그걸 높고 두꺼워서 뚫질 못해서 못 간다는 겁니다. 살아생전에 그렇게 넘어가지 못하죠. 귀신들이 육식육식육식하고 독사

초판 일주일 만에 2쇄 발행

천문학자 이시우 서울대 명예교수의 직지에 대한 단상

직지直指, 길을 가리키다

문화유산의 가치를 뛰어넘는 가르침, 선불교의 정수 <직지> 선불교는 더 이상 풀지 못할 미지의 세계가 아니다.

이시우 지음 / 648쪽 / 29,500원 / 신국판 변형 양장

Tel. 021732-2403~4 민족사

붓다에게 배우는 행복하게 사는 법

붓다의 인생 코칭

불교는 현실적이지 않다?? 붓다가 일러주는 직장인을 위한 자기계발의 지침서

비즈니스를 할 때에 감정이 얼굴에 쉽게 나타나는가? 상사와의 갈등에 괴로운가? 현대사회는 수없이 많은 상황이 복잡하게 얽혀있기에 정확한 결단이 매순간 요구된다. 이 책은 빠른 결단을 내리는 법, 새로운 부수로 발령 받았을 때 대처하는 법 등, 흔치 않은 출퇴근길을 겪으며, 커피와 야근이 일상화된, 고단한 현대인을 위한 붓다의 인생 코칭이다.

우에나시 아키라 지음 · 유원환 옮김 / 신국판 / 10,800원

Tel. 021732-2403~4 민족사

화두 참구의 길잡이! 깨달음의 길을 찾는 이들을 위한 선 수행의 필독서! 드디어 5년 만에 재간되다!

원문을 번역하고 현토(懸吐), 주와 해설을 붙인

벽암록 완역판

공안집의 최고봉, 선(禪)문화의 총결산 <벽암록>, 최초의 완역본! 석지현의 명쾌한 해설로 만나다.

원옥근 지 · 석지현 역주 해설 / 신국판 / 145,000원 (세트)

Tel. 021732-2403~4 민족사

마음의 비밀 - 알기 쉬운 유식입문

유식(唯識)에서는 마음의 가장 깊은 곳을 아뢰야식이라고 한다. 마음의 표층에서 생기는 감정이나 사고는 모두 아뢰야식에 축적되어 무의식중에 표정, 몸의 상태로 나타나 외모에까지 영향을 준다. 표층과 심층이 연결되는 비밀코드를 알면 누구든지 자유롭고 당당하게 살아갈 수 있다. 이 책은 갖가지 스트레스가 많은 현대인을 위한 구체적인 체계적인 마음의 교과서라고 할 수 있다.

표층과 심층이 연결되는 비밀의 코드, 아뢰야식!

오로야마 코이치(横山一) 지음, 김명우 옮김 / 232쪽 / 10,800원 / 4×6판

Tel. 021732-2403~4 민족사